

居住地 移動에 關한 模型의 設定-巨視的 接近과 微視的 接近의 統合

鄭 基 源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目 次〉

- I. 머리글
- II. 居住地 移動에 關한 意思決定過程
- III. 各段階에 影響을 미치는 巨視的 要因

IV. 各段階에 影響을 미치는 微視的 要因

V. 맺음語

I. 머리글

人口가 한 지역에—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首都圈 지역에—너무 偏重하게 되면 社會的으로, 그리고 經濟的으로 많은 問題點이 야기된다. (구체적인 問題點의 內容에 관해서는, 권태준, 1983 : 이한준, 이우리, 1983 ; 김형준, 1986 : 이계식, 1987등을 참조) 大都市의 人口集中을 막으려는 노력을 國土建設綜合計劃法(1963년) 制定을 시작으로 하여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人口分散政策의 効果는 크게 나타나지 못하였다(김한재, 1989).

우리나라에서의 人口移動¹⁾에 관한 研究는 주로 巨視的 接近에 치중하여 人口移動의 趨向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人口移動의 趨向을決定짓는 要因들에 관한 研究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現象을豫測하는 힘이 별로 없었다. 다른나라에서 이루어진 人口移動 또는 居住地 移動에 관한 研究의 趨向을 살펴보면, 接近方法에 있어서의 뚜렷한 變化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연구의 관심이 總體的인 人口의 趨向에서 個別的인 居住地의 移動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데(Fischer, 1985 ; Landale and Guest, 1985), 이러한 경향은 總體的 資料의 利用만으로는 居住地 移動의 意思決定이나 行態의 類型을 파악할 수 없어 個人的 居住地 移動을 충분히 說明하지 못하기 때문이다(Sell and DeJong, 1978 : Fischer, 1985).

人口移動에 관한 研究에서 巨視的立場과 微視的立場의 연계에 대한 必要性이나 重要性은 많이 指摘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體系의 이지 못한 형편이다. 人口移動에 대한 巨視的 接近에서도 個人的 特性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Hawley, 1950 ; Shaw, 1975 ; Ritchey, 1976), 居住地 移動에 대한 微視的立場에서는 巨視的 要因들의 영향이 分析의 틀에 포함되어지기도 한다(Trandis, 1971 ; Miller and Godwin, 1977 ; DeJong and Fawcett, 1981 ; Gardner, 1981 ; Findley, 1982, 1983 ; Findley and DeJong, 1985 ; Lee, 1985).

微視的 接近과 巨視的 接近의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試圖는 Gardner(1981)와 Findley(1982 ; 1983)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Gardner(1981)는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過程의 模型에서 居住地

1) 영어에서의 'migration'이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이동'으로 번역되어진다. 'migration'이라 했을 때에는 가시적인 개념과 미시적인 개념이 함께 포함되지만, '인구이동'의 개념에는 인구이동의 趨向에 바탕을 두고 가시적인 의미로 써여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migration'이 가시적 개념으로 쓰여질 때는 '인구이동'으로, 그리고 미시적 개념으로 쓰여질 때는 '가주지 이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구분은 앞으로의 연구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移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個人의 價値體系가 地域社會의 文化나 規範에 의해서決定되어지고 있음을 強調하고 있다.個人의 居住地 移動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的 特性的 巨視的 要因은個人의 意志와는 관계없이 있을 뿐이지만,居住地 移動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方向은個人이 지니고 있는 價値體系에 따라 定해진다. Gardner(1981)의 연구는 微視的 接近의 居住地 移動決定過程의 각段階마다 巨視的 接近들이 어떻게 影響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微視的 接近과 巨視的 接近을 統合하는 훌륭한 試圖였다. 하지만 그의 模型에서 나타나는 巨視的 要因은 文化的 영향에만 制限되어 있는 탓에 아직까지 두接近의 統合이 만족스러울 정도가 못되고 있다. Findley(1982: 1983)는 Gardner(1981)의 模型을 발전시키면서個人의居住地 移動行爲에 영향을 미치는 巨視的 要因은 社會的, 文化的 要因뿐만 아니라 地域의 經濟的構造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個人의居住地 移動에 관한 模型에서도 Findley(1982: 1983)는 移住決定段階와 移住形態의 選擇段階을 區分하였다.

Gardner(1981)와 Findley(1982: 1983)의 統合模型은個人의居住地 移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說得力を 지닌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몇몇의 경우를 제외하고는(몇몇의 경우는 Findley and DeJong, 1985; Lee, 1985; Cheong, 1987) 그러한統合의 模型을 實證的으로 검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分析에 필요한 資料의 制限에 따른 分析의 어려움 때문이다. Findley and DeJong(1985)의 實證的 分析은 菲利핀의 한農村地域을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의研究에서는 “家族의 經濟狀態와 地域의 社會的, 經濟的構造가 어떻게居住地 移動의 行爲에 영향을 미치는가”(p.18)를 보여주고 있다. Lee(1985)의 分析은 Findley and DeJong(1985)의 연구대상이 된 같은 地域의 資料에 대해 情況分析(contextual analysis)의 틀을 利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의 分析에 쓰여진 社會的 要因은 地域의 人口構造, 農業構造, 就業機會構造, 그리고 都市生活 環境을 포함하고 있다.

Findley and DeJong(1985)과 Lee(1985)의 實證分析이 그對象을 菲利핀의 조그만 農村地域 한곳으로 制限하고 있는데 反해서, Cheong(1987)의

연구는 美國의 全地域을 對象으로 하는 全國縱斷調查(National Longitudinal Survey)의 資料를 分析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서는個人의居住地 移動에 영향을 미치는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이 함께 分析의 틀에 놓여하는데, 主된 관심은 經濟構造와個人의 貧困 狀態에 주어져 있다.

巨視的 接近과 微視的 接近을 통합하는居住地 移動의 模型設定과 그려한 模型의 實證的 分析은理論의 意味와 社會 政策의 意味를 함께 지닌다. 理論의 意味와 함은 人口移動 또는居住地 移動의 研究를 위한 理論의 發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政策의 意味는個人의居住地 移動에 관한決定에 영향을 미치는 巨視的 要因들이 밝혀져서 人口分散政策의 수립에考慮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人口移動 또는居住地 移動의 研究에서는 巨視的 接近과 微視的 接近을 統合하려는 試圖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本研究에서의 目的是 이때까지 이루어진 研究의 結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의居住地 移動에 관한 理論的 模型을 마련하는 것이다. 模型은個人의居住地 移動에 관한意思決定過程을段階別로 展開하고, 그리고 각 단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의 影響을 밝히게 될 것이다. 實證的 分析은 이 研究의範圍 바깥에 있으며, 資料가 마련되는대로 다른 研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II. 居住地 移動에 關한 意思決定過程

人間의 행위에 關한意思決定의 過程은 대개 단계로 나누어지며, 그리고 각段階는 대개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Brim et al., (1962)는意思決定의 過程이 여섯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각 단계는 問題의 把握; 問題 解決에 필요한 情報의 蔑集; 解決方案들의 摸索; 각 方案에 대한評價; 方案의 選擇; 그리고 選擇된 解決 方案의 實踐이다. 居住地 移動도 人間의 行為이기 때문에 實質의居住地의 移動이 이루어지기 前에意思決定의 過程을 거치게 된다(Rossi, 1995). 居住地 移動에 關한意思決定의 過程에 있어서는 그段階가居住地 移動에 대한 意圖와 移動의 實行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예를 들면, Van Arsdol et al., 1968;

Speare et al., 1975 ; Brown and Sanders, 1981 ; DeJong and Fawcett , 1981 ; Gardner, 1981), 但し 移住의 決定과 移住對象地의 選定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Speare et al., 1975 ; Brown and Sanders, 1981 ; Haberkorn, 1981 ; Findley, 1982 ; Landale and Guest, 1985 ; Ben Akiva and de Palma, 1986 ; Fotheringham , 1986 ; Plane and Rogrson, 1986).

居住地 移動의 行為가 언제나 意思決定의 모든 段階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자는 段階의 順序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Peterson(1958)이 분류한 居住地 移動의 行態에서 強制된 移住과 追放 등을 個人의 意思決定과는 전혀 關係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록 自意의 移住(free migration)라고 할지라도 對象地의 選定이 移住에 대한 意圖의 決定보다 먼저 나타난 수도 있다. 따라서 居住地 移動에 관한 模型의 발전에 있어서는 몇 가지의 前提條件을 필요로 하는데, 그 前提는

- ①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은 個人에 의해 서 이루어진다.
- ② 意思決定에 참여하는 個人은 自由且合理的이다(free and rational),
- ③ 居住地 移動은 意思決定過程의 結果로 일어나는 行為이다.

이러한 前提은 바탕으로 한 居住地 移動에 관한 模型은 移住에 대한 意思決定過程에 있어서의 각 段階에 나타날 수 있는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의 영향을 모두 밝힐 수 있기 때문에 實證的 analysis를 위한 理論的 틀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必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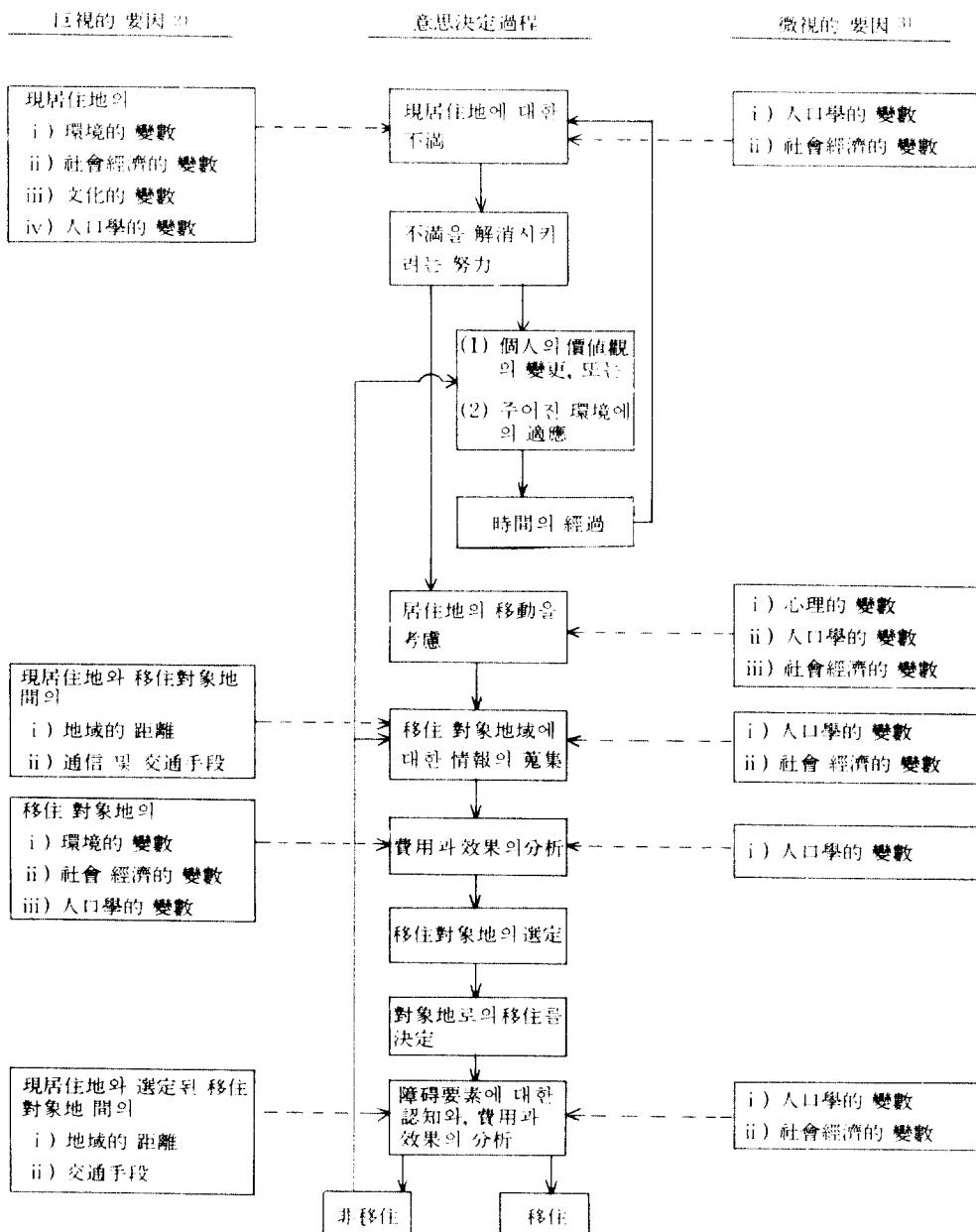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過程에서의 出發點은 個人이 移住할 것을 고려하는 단계인데, 이는 “현재의 居住地에 대한 滿足感의 相對的 水準”(Speare et al., 1975 : 176)에 의해 決定된다.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感의 程度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地域에서 느끼는 不便함에 대한 反撥이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物質의 居住地 移動의 意思決定過程의 첫번째 단계인 居住地 移動의 考慮與意圖을 誘發시키는 것이다(Janis and Man, 1977).

居住地 移動이 現居住地에 대한 物質을 解消시키

는 하나뿐인 解決 方案(单一的 解決方案) 중에서 하나의 重要性 方案을 따름이다. 現居住地에 대한 物質의 要素들은 현재의 環境에適應되거나(Speare et al., 1975), 또는 個人이 가지고 있는 價値體系나 規範을 바탕으로써(Gardner, 1981) 解決法이 될 수 있다. 個人的 價値體系의 變化나 주어진 環境에의 適應으로 환경의 居住地에 대한 不滿을 없애 줄 수가 있다. 하지만 時間이 지남에 따라 또 다른種類의 不滿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意思決定의 첫 段階로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을 없애고자 하여 移徙를 가려고 생각하게 되는 境遇에, 사람들은 어디로 옮기어야 한지에 대한 意思決定을 하게 된다. 이때에는 먼저 옮기고자 하는 地域들에 대한 情報들을 審集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많은 場所에 대하여 必要한 기의 모든 情報을 求하게 된다. 移住 對象地에 대하여 얻어진 情報은 바탕으로 居住地를 옮길 때 예상되어지는 費用과 利益을 계산한다. 옮기고 場所가 選定되어지고 나면 그곳으로 移住해 가기로 決定을 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居住地의 移動에 따르는 障碍의 要素를 인지하게 된다(Landale and Guest, 1985 : 202). 居住地 移動에 대한 決定이 이것에 따르는 障碍要素들 때문에 원래의 居住地 移動의 實行으로 옮기지지 않는(Gardner, 1981), 이러한 장애요소는 狀況的의거나 情況的(Situational and contextual)이다(Frisbie and Poston, 1978). 居住地 移動의 決定이 實行으로 옮기지지 못하는 경우엔 現在의 居住地에 대한 不滿의 解消 방안을 個人的 價値觀 變更이나 環境의 變化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地域에 대한 情報와 보다 많은 情報를 바탕으로 移住 對象地를 다시 選定하게 된다.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의 模型은 <그림 1>에 整理되어 있다. 의사결정은 결策 效用極大化的 原理에 바탕을 둔 效用의 函數로 나타나는데, 이때의 效用은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의 복합된 函數로 決定되어진다. 따라서 <그림 1>에서는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의 過程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意思決定過程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을 밝히고 있다.

그림 1. 居住地 移動의 意思決定過程과 各 過程에 影響을 미치는 巨視的 要因 및 微視的 要因⁽¹⁾

- 주: 1) 그림에서 要因들 的 影響은 簡便의 表示 (→)로 나타냈으며, 要因 间 變數들 간의 相互作用에 의한 影響은 그림의 單純화를 위해 無視되어졌다.
- 2) 巨視的 要因에서의 變數들에 포함되는 地域的 特性과, 각 變數들 中에서 특히 大한 影響을 미치는 特性的 內容은 本文에 說明되어져 있다.
- 3) 微視的 要因에서의 變數들에 포함되는 個人的 特性과, 각 變數들 中에서 특히 大한 影響을 미치는 特性的 內容은 本文에 說明되어져 있다.

III. 各段階에 影響을 미치는 巨視的 要因

巨視的 要因은 現居住地 또는 移住 對象地의 地域의 特性을 말한다. 地域의 特性은 人口移動을 誘發시키는데 있어서 排出要因(push factors)과 誘引要因(pull factors)으로 作用한다(Lee, 1966). 이러한 巨視的 要因은 人性質에 따라서 情況變數와 背景變數(contextual and setting variables)로 나뉘어 지는데(Freedman, 1979 : Gardner, 1981), 背景變數는 地域住民의 意志와는 별로 관계없이 歷史的, 構造的, 그리고 物理的으로 存在하는 特性을 말한다(Freedman, 1979 : 10-11). 그리고 情況變數는 지역주민의 人口의 特性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며, 따라서 조급은 쉽게 變化되어질 수 있는 地域特性을 말한다(Gardner, 1981). 巨視的 要因과 人口移動의 關係과의 관계는 이때 각자의 人口移動에 관한 研究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는데(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는, 조정세, 1982 ; 이한준, 이우리, 1983 ; 그리고 外國의 경우는, Todaro, 1969 : Harris and Todaro, 1970 : Sly, 1972 : Frisbie and Poston, 1978 : Greenwood, 1985), 이 글에서는 人口移動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의 特性을 ① 環境的 要因, ② 社會經濟的 要因, ③ 文化的 要因, 그리고 ④ 人口學的 要因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環境的 要因은 地域이 지니는 物理的, 그리고 施設의 與件들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氣候條件, 生活 中心圈으로부터의 距離, 騒音 및 公害程度, 에너지 供給程度, 上水道 普及率, 公園面積 등(조정세, 1982 ; 이한준, 이우리, 1983 ; Oosterbaan, 1980 : Schachter and Althaus, 1982)이 포함된다.

人口移動에 관계되는 社會經濟的 要因은 居住地의 就業機會 또는 失業率, 犯傭 및 產業構造, 教育施設, 그리고 平均所得 水準 등을 포함한다(조정세, 1982 : Todaro, 1969 : Harris and Todaro, 1970 : Wardwell and Gilchrist, 1980 : Greenwood, 1985 : Lee, 1985 : Cheong, 1987).

文化的 要因은 個人的居住地 移動의 決定과 관계되는 個人的 價値體系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의 文化的 特性으로, 여기에는 地域住民이 公開적으로 지니는 價値體系나 規範이 포함된다(Gardner, 1981). DeJong and Fawcett(1981 : 49-52)는 人口移

動에 영향을 주는 價値體系의 유형을 富, 地位, 安樂, 刺戟, 自治, 踏屬, 그리고 道德性(wealth, status, comfort, stimulation, autonomy, affiliation and morality)의 7 가지로 區分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치체계의 분류는 微視的 要因으로 나타나는 個人的 價値體系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巨視的 要因으로서의 人口學的 變數는 人口移動을 설명하는데 쓰여지는 地域의 人口學의 特性으로서 여기에는 지역주민의 年齡構造, 男女比率, 人口移動의 率, 그리고 人口密度 등을 포함한다(조정세, 1982 : Cheong, 1987). 居住地의 特性은 排出要因과 誘引要因의 기능으로 사용하는데(Lee, 1966), 이것은 현재 살고 있는 地域에 대한 個人的 滿足感에 영향을 미치고(Dorigo and Tobler, 1983), 또 個人的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글에서 만들어진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過程의 모형에서 첫 段階는 현재 살고 있는 地域에 대한 個人이나 家族들의 不滿에서 시작되어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삶의 期待나 目標에 비주어서 現在 살고 있는 地域을 끊임없이 評價하게 되는데(Brown and Sanders, 1981 : 151), 이때 評價의 對象이 되는 地域의 特性은 이미 앞에서 얘기되어진 모든 環境的 要因과 社會經濟的 要因을 포함한다. 1983년에 全國을 對象으로 하여 실시된 韓國人 人口移動調査의 결과 분석에서 장래의 居住地 移動希望의 理由 가운데 環境的 要因과 經濟的 要因이 43.1%를 보이고 있는데(윤종주, 1986 : 186), 이는 地域의 環境的, 그리고 社會經濟的 特性的否定的側面이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暗示해 준다.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은 個人的期待와 그 기대를充足시켜줄 수 있는 地域의 與件사이에 나타나는 乖離에서 비롯되어지는데, 지역의 文化的 要因과 人口學的 要因은 주로 個人的期待構造를 決定하는 價値體系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地域住民의 年齡構造나 男女의 構成比率이 結婚 適齡期에 있는 사람들에겐 매우 큰影響을 미칠 수도 있으며, 다른 地域으로부터의 轉入된 人口가 많은 地域의 住民들은 그들의 地域與件을 相對적으로 評價하기가 쉽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된 7 가지의 價値體系로 나타나는 文化的 要因은 個人的 價値體系로

유입되어 현居住地에 대한 평가의尺度로 삼아지게 된다.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스러움이 커지게 되면 不滿을 解決하는 方法中의 하나로居住地를 移動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이居住地 移動의 意思決定過程에서 두번째 段階를 이룬다.居住地 移動을 생각하게 되면, 먼저 어디로 移住를 할 것인가를决定하기 위해 여러 對象地域들에 대한 情報를蒐集하게 된다. 이때 수집되어지는 정보는 주로現居住地에서 불만의 原因이 되었던 巨視的要因들이 對象地域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의 巨視的要因은 주로誘引機能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環境의 變數와 社會經濟的變數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다. 人口移動에 대한 人間資本論의 接近에서는 人口의 移動을 社會階層移動의 성취를 위한 보다 나은 就業機會의 獲得을 目的으로 하는 行爲라고 定義하고 있는데(Laber and Chase, 1971 : Vandercamp, 1972 : DaVanzo, 1978, 1981 : Lee, 1985), 이러한 경우엔 移住對象地域의 產業構造나 就業機會가 매우 큰 誘引要因으로 작용하게 된다. 人口學의 要因중에서는 移住對象地域 人口의 年齡構造와男女의 性比構造가 특정 집단(예를 들면 農漁村의 結婚適齡期에 있는 男子)에게 強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模型에 포함시켰다.

移住對象地의 巨視的要因들이 誘引의 機能으로 나타나지만, 對象地의 巨視的要因들에 대한 모든 情報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個人이나 家族의居住地 移動의 대상지역을 고르는데 利用되는 것은 制限的으로 얻어진 情報일 뿐이다. 情報의 흐름은 現居住地와 移住對象地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한 두 地域間의 通信이나 交通手段과 移住對象地의 情報提供을 위한 努力에 도影響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얻어진 情報를 바탕으로 하여個人은 費用과 効果의 分析을 통하여 한 地域을居住地 移動의 對象地로決定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期待”(DaVanzo, 1981 : 92)에서居住地 移動을 결정하게 된다.居住地 移動이 결정되면 移住에 드는 費用과居住地 移動을 통해 얻게 될 利益을 계산하여, 移住은 통한暫定의 利得이 移住의 費用을 넘을 경우에居住地

移動을 하게 된다. 이러한 過程이居住地 移動의 過程에서 세번째 段階를 이루는데, 이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巨視的要因은 주로 實質的移住에 따르는 障碍要素들인데 (Ladale and Guest, 1985 : 202), 장애요소의 영향은居住地 移動의 결정을 實質的行動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만난다 (Gardner, 1981). 이때 나타나는 主要한 障碍要素는 現居住地와 移住對象地間의 거리와 交通手段 등이다. Zipf(1946)의 두 地域間에 나타나는 人口의 移動量은 이동거리에 反比例한다는 假說은 이러한居住地 移動에 미치는 障碍要素의 영향을 살 뒷받침해 준다.

實質的居住地 移動의 行爲가 일어나게 되면 移住對象地가 現居住地로 바뀌게 되고, 다시 模型의 첫 段階로 돌아가게 된다.

IV. 各段階에 影響을 미치는 微視的要因

微視的要因은個人의居住地 移動의 行爲에 影響을 미치는個人의特性을 말한다.居住地 移動에 미치는個人의特性에 관한 實證的研究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대표적인 연구로는 Bogue, 1969 : Shaw, 1975 : Price and Sikes, 1975 : Ritchey, 1976 : 윤종주, 1986), 최근에 와서는個人의特性이居住地 移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主張되고 있다(Landale and Guest, 1985 : 200-201).居住地 移動에 대한 微視的接近은 주로 微視經濟理論(DaVanzo, 1981),居住地에 대한 滿足度(Speare, 1974 : Speare et al., 1975 : Landale and Guest, 1985), 價値期待理論(Sell and DeJong, 1978 : DeJong and Fawcett, 1981), 그리고 社會心理的理論(Haberkorn, 1981) 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주요한 관심은居住地 移動의 選擇性과 差別性>Selectivity and differential)에 주어진다.

居住地 移動에 영향을 미치는個人의特性은 ① 人口學의 變數, ② 社會經濟的變數, 그리고 ③ 心理學的變數로 나뉘어질 수가 있다. 人口學의 變數는 나이, 性, 結婚狀態, 家族關係, 現居住地에서의居住期間 그리고居住地 移動의 經驗有無 등을 포함하고, 社會經濟的變數는 주로個人의 社會經濟的地位를 말하는 것으로 職業, 教育程度, 그리고所得을 포함한다. 心理學的變數란 모든 行爲의

意思決定에 미치는 個人的心理的의側面으로, 個人이 지니고 있는 價値觀, 成就動機의 정도, 危險의 甘受에 대한 態度, 開拓精神, 그리고 愛鄉心을 포함하게 된다.

居住地 移動에 대한 意思決定過程에서 첫번째 단계는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에서 출발된다. Speare (1974)는 그의 居住地 移動에 관한 模型에서 “나이, 收入, 居住期間 등과 같은 要因은 移住를 고려하는 決定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p.176), 오히려 個人的 特性들이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의 크기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불만이 居住地의 移動에 대한 決定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主張한다.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度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微視的 要因은 實證的研究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Speare, 1974 : Marans and Rodgers, 1975 ; Rojek et al., 1975 ; Campbell et al., 1976 ; Tinakul and Stinner, 1985), 이때의 微視的 要因에는 人口學的 變數들 중에서 性, 나이, 家族關係, 그리고 居住期間 등이, 社會經濟的 變數로는 職業, 收入, 그리고 教育程度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段階에서는 個人的 特性이 서로 影響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居住地 移動에 관한 微視的 接近에서 나이는 가장 많이 分析되어지는 變數인데, 實證的研究에서는 20代와 30代에 높아지는 齊은총의 集團이 가장 높은 居住地 移動率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윤종주, 1986). 이러한 現象에 대해서는 齊은총의 집단은 現居住地에 있어서의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 歸屬感이 비교적 낮으며, 또한 새로운 環境에 대해 쉽게 適應할 수 있기 때문 (Shaw, 1975 : 18)이라는 說明이 높은 說得力を 자닌다. 現居住地에서의 居住期間과居住地 移動間의 관계도 이때까지의 實證的研究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Myers et al., 1967 ; Morrison, 1967 ; Speare et al., 1982), 이때의 관계는 “自然에서 한 狀態에 그대로 있고자 하는 確率은 그 狀態에서 이때까지 있어왔던 期間의 單純函數 (strict monotone function)로 增加하다” (McGinnis, 1968 : 716)는 累積慣性的 原理 (the axiom of cumulative inertia)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累積慣性的 原理가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度의 크기에 사용되는 것은 現居住地에서 만들어진 社會的・經濟的 歸屬

感을 통해서이다. 家族關係와 性이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도에 대하여 明顯影響을 미친다는 研究의 方向이一定하지가 않다. 結婚은 그 사람이 結婚을 하지 않은 사람에 比하여 家族의 歸屬感 때문에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度가 높을 수 있으나, 配偶者の 價値觀이 作用될 때에는 그와의 다른 方向으로 나누 수도 있다. 個人의 性이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度의 크기에 影響을 미치는 것도 암시 그 사람의 다른 人口學的 特性이나 社會經濟的 特性과相互作用하여 복잡한 形態로 나타나게 된다.

社會經濟的 變數가 居住地 移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實證的研究는 주로 높은 社會經濟的 地位에 있는 사람이 높은 居住地 移動率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haw, 1975 ; Ritchey, 1976 ; Lee, 1985 ; Markham and Pleck, 1986). 이는 穩質적인 居住地의 移動에 있어서 높은 社會經濟的 地位가 障碍要素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現居住地에 대한 滿足度의 크기는 收入이나 職業으로 나타나는 社會經濟的 地位의 反比例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높은 收入을 保障하는 職業은 現居住地에서 일어지는 與件이 되기 때문에, 높은 收入의 職業을 가진 사람은 다른 集團의 사람들에 比해서 現居住地에 대한 비교적 높은 滿足度를 보이게 될 것이다.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이 쌓아가 되면 그러한 불만을 解消시키고자 하는데, 現居住地에 대한 불만의 해소에는 여러가지 代替的인 方法이 있다. 不滿의 原因이 現居住地가 지니고 있는 巨視的 要因으로부터 오고, 또한 그러한 巨視的 要因이 個人에게 미치는 影響의 크기는 個人的 微視的 要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은 現居住地에 대해 個人이 適應을 하든지, 아니면居住地를 옮기감으로써 解消되어질 수가 있다. 方法의 選擇은 個人的 意思決定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이 글에서는 글의 目的에 맞추어居住地 移動을 고려하게끔 하는 微視的 要因들에만 關心이 주어진다. 個人이居住地 移動을 고려하게 될 때 영향을 미치는 主要한 要因은 個人的 心理的 變數이다. 여기에서 個人的 性格에 관계되는 心理的 變數에는 保守의하거나 革新的의 性向 (conservative versus liberal attitudes), 都市志向性이나 鄉土偏愛性 (cosmopolitanism versus localism),

獨斷的이나 柔軟한 認知構造(dogmatic versus flexible cognitive operations), 危險負擔의 行動에 대한 態度, 그리고 野望의 程度 등이 M하트리(Taylor, 1969; Trlin, 1975; Haberkorn, 1981: 260-261에서 再引用). 이러한 心理的 變數를 바탕으로 한 때, 居住地 移動의 方法으로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을 解消시키고자 하는 사람을 活動的인, 未來에 대해 開拓的인, 그리고 成就動機가 強한 類型의 集團이다(Haberkorn, 1981: 261-263). 個人的 人口學的 變數와 社會經濟的 變數는 居住地 移動을 통하여 現居住地에 대한 不滿을 解消시키려는 類型의 心理的 變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한 方法을 選擇하게 되는 意思決定過程에 차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人口學的 變數들 중에서 나이는 새로운 地域에의 適應速度를 통해서, 家族關係는 移動의 容易性과 다른 親戚들과의 歸屬感을 통해서, 그리고 居住期間은 現居住地에의 귀속감 degree를 통해서 居住地 移動을 고려하게 되는 過程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社會經濟的 變數는 勞動市場의 작용에 대한 認知를 통해서 居住地 移動을 고려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Shaw, 1975).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의 模型에서 다음段階는 移住 대상지역에 대한 情報을 蒐集하게 되는 과정이다. 移住 對象地域의 정보 수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微視的 要因으로는 人口學的 變數 중에서 居住地 移動의 經驗과 家族關係가, 그리고 社會經濟的 變數들 중에서는 教育程度가 특히重要하게 작용한다. 人口移動의 유형 중에서 回歸移動(return migration)이 매우 높은 比率을 차지하는데 (DaVanzo and Morrison, 1982), 이는 居住地 移動의 경향을 지닌 사람들이 前居住地에 대한 情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移住 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親戚들이 그 地域에 대한 情報의 提供者가 될 수 있기 때문에 家族關係도 移住 對象地의 情報 蒐集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社會經濟的 變數들 중에서 教育水準은 移住 對象地域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機會에 대한 情報의 認知水準과 연结되어 있는데(Shaw, 1975; Ritchey, 1976; Lee, 1985; Markham and Pleck, 1986), 이는 情報의 傳達媒體에 대한 接近度의 差異를 통해서 나타난다.

移住 對象地域에 대하여 얻어진 情報을 바탕으로 하여 費用과 効果의 分析을 하게 되고, 그 分析의 結果에 따라 移住 對象地를 選定하여 그 地域으로 居住地를 移動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 費用과 効果의 分析에서 고려되는 効果는 居住地 移動을 통하여 얻어지는 평생동안의 利得으로, 이러한 暫定的效果는 특히 個人的 나이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居住地 移動의 利得은 年의 나머지期間을 통해서 얻어나게 되므로(DaVanzo, 1981) 이들을 얻게 되는期間은 年의 나이에 反比例하게 되는 것이다. 移住에 쓰여지는 費用과 移住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 利得을 비교하여 利得이 費用来 초과한 경우에 居住地 移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合理的인思考를 바탕으로 한 比較와 決定임을前提로 한다. 따라서 個人的合理的思考의 態度가 이 過程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對象地로의 移住를 決定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居住地를 移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Gardner, 1981; Landale and Guest, 1985), 이는 사람들이 移住를 결정하고 단 후에 居住地 移動時 발생하게 될 障碍要素를 認知하기 때문이다. 障碍要素는 주로 居住地 移動에 쓰여지는 費用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의 障碍要素는 家族關係와 所得水準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實證的研究에서 配偶者가 있는 것은 居住地 移動에서의 障碍要素로 나타나고 있으며(Lichter, 1982), 낮은 經濟的水準은 移住에 필요한 實質的 費用의 不足(Markham and Pleck, 1986; Cheong, 1987)으로 說明되어지고 있다.

V. 맷음글

이 글에서는 居住地 移動에 관한 意思決定過程을 먼저 模型化한 후에, 각 過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을 밝히고자 하였다. 意思決定過程은 먼저 세 段階로 나누었다. 居住地 移動을 考慮하게 되는 단계, 移住 對象地域의 選定과 對象地로의 移住를 決定하는 단계, 그리고 實質的으로 居住地를 移動하는 단계로 나뉘며, 각 段階에서 얻어나는 意思決定의 過程을 보다 細分化시켜서 具體적으로 얻어나는 居住地 移動에 관한 의사

인성과정을 模型化하였다. 각 과정에 影響을 미치게 되는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은 이때까지 이루어진 實證的研究의 결과와 人口移動에 관한一般的理論의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밝혔다. 이렇게 이루어진 巨視的 接近과 微視的 接近의 統合의 模型發展은 앞으로의 人口移動에 관한 實證의 資料의 研究에서 分析의 틀로 쓰여질 수 있는 理論의 意味를 지니게 되고, 또한 人口의 分散政策을 수립하는데 個人的의 側面에서 考慮되어질 內容을 提供해주는役割도 하게 된다.

個人의居住地移動은 意思決定의 결과로 나타나는 行爲라는前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統合의 模型의發展이긴 하지만, 이 글에서 提示되어진 模型에도 몇몇의 制限點을 지나고 있다.

첫번째 제한점은 實質的居住地移動이 模型에 나타난 모든意思決定을 언제나 가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의사결정의順序가 뒤바뀌어지는境遇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居住地移動에 대한決定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移住의 對象地域을 물색하는 경우가 많은 實證的研究에서 나타나고 있다(Speare et al., 1975 : Findley, 1982 : Landale and Guest, 1985 : Ben Akiva and de Palma, 1986 : Fotheringham, 1986 ; Plane and Rogerson, 1986). 하지만 이러한制限點을 깨닫으로 하여意思決定過程에 대한 巨視的 要因과 微視的 要因의 영향의 類型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提示된 模型이 實證的研究의 分析틀로 쓰여지는 데에는 아무런問題가 없을 것이다.

두번째 제한점은 意思決定過程에 대한 巨視的要因과 微視的要因間의相互作用의 影響과, 그리고 각각의 要因에서 提示되어진 變數들 간의相互作用의 效果가 無視되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模型의單純化를 위해서相互作用의影響을 忽略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實證的研究의 分析틀로 쓰여질 때에는統計的處理를 통하여相互作用의效果들이 염이질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의 제한점은, 模型에서意思決定에 影響을 미치리라豫想되는 모든要因이나 變數를 모두 包含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서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要因들이 충분히考慮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人口移動에 대한 이때까지의研究가 주로

巨視的接近으로 이루어지면서 人口의 處理를 밝히고 있을 뿐이고, 그 處理의 方向에 대한 要因은 별로 밝혀지지 않아서 參考할 實證的研究의 結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巨視的接近의 人口移動 연구가居住地移動의 의사결정과정이나 移住行動의 內容을 전혀 說明할 수 없기 때문에 (Sell and DeJong, 1978 : Fischer, 1985), 巨視的接近의 人口移動研究보다는 微視的接近의居住地移動에 관한研究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Fischer, 1985 : Landale and Guest, 1985)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微視的接近의居住地移動에 관한研究는 최인현 외(1986)의 경우를 例外하고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여기에서 展開되어진 統合의 模型은 앞으로의 實證的研究를 바탕으로 하여 더욱修正되고發展되어질 必要가 있다.

居住地移動의 의사결정에 관한 統合의 模型은 모형의發展自體로서도 意味를 지닐 수 있지만, 여기에 提示되어진 模型은 앞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사람들의居住地移動에 관한 實證的研究의 分析틀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機會가 주어지는 대로 여기에 提示된 模型을 分析틀로 하여 實證의 資料를 分析할 計劃이며, 그 分析을 바탕으로 統合의 模型은 더욱修正和发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 권태준, 1983,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점과 대책”, *인구문제논집*, 24 : 2-11
- 김언제, 1989,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한국인구보건연구원과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사회개발과 인구정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서울 : 1989. 5. 10
- 김형준, 1986,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의 평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6 : 115-138
- 윤종주, 1986, “개인의 이동사에 관한 연구”, 최인현 외 (편), *인구이동과 사회경제발전-인구이동 특별조사* 실증분석, 91-196쪽, 서울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부
- 이계식, 1987, “인구집중완화를 위한 재정정책 방향”, *연하장*, 이계식(편), 국가예산과정책 목표 : 1987년도 . 410-462쪽,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 이한준, 이우리, 1983. “한국내 인구이동의 패턴 변화
에 관한 세량적 연구 : 1960-1980년을 중심으로”,
인구문제논집, 24 : 123-143
- 조정재, 1982. “지역간 인구이동에 관한 세량적 분석”,
국토연구, 1 : 22-53
- 최인환, 정영일, 변용찬(편), 1986. 인구이동과 사회경제
발전 : 인구이동특별조사 심층분석. 서울 : 한국인구보
건인구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 Ben Akiva, Moshe and Andre de Palma, 1986. “
Analysis of a Dynamic Residential Location
Choice Model with Transaction Cost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6(2) : 321-341
- Bogue, Donald J. 1959. “Internal Migration”, pp.
486-509 in *The Study of Population : An Inventory
and Appraisal*, edited by Philip M. Hauser and
Otis Dudley Dunca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im, Orville G., Jr., David C. Glass, David E.
Lavin and Norman Goodman, 1962. *Personality
and Decision Processes : Studies in the Social Psy-
chology of Thinking*. Stanford : Stanford Univer-
sity Press
- Brown, Lawrence A. and Rickie L. Sanders, 1981.
“Toward a Development Paradigm of Migr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ird World Set-
tings”, pp. 149-185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 Pergamon Press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and Willard
L. Rodgers,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Cheong, Keywon, 1987. “Poverty and Migration :
Synthesis of Macrolevel and Microlevel Pers-
pectives of Migration”, Ph. D. Dissertation, Log
an : Utah State University
- DaVanzo, Julie, 1978 “Does Unemployment Affect
Migration? Evidence from Microdat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0(4) : 504-514
- _____. 1981. “Microeconomic Approaches to Studying
Migration Decisions”, pp. 90-129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 Pergamon Press
- DaVanzo, Julie and Peter A. Morrison, 1981. “
Return and Other Sequences of Migration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y*, 18(1) : 85-1
01
- _____. 1982. *Migration Sequences : Who Moves Back
and Who Moves On?* Santa Monica : Rand Corp.
- DeJong, Gordon F. and James T. Fawcett, 1981.
“Motivations for Migration : an Assessment and
a Value-expectancy Research Model”, pp. 13-
58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
Pergamon Press
- Dorigo, Guido and Waldo Tobler, 1983 “Push-Pull
Migration Law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3(1) : 1-17
- Findley, Salley E. 1982. “Methods of Linking Com-
munity- Level Variables with Migration Survey
Data”, pp. 276-311 in *National Migration Surveys.
X : Guidelines for Analysis*, edited by Economics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New
York : The United Nations
- _____. 1983. “Community- Level Variables and
Migration : a Proposed Theory and Strategy of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
ings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Pittsburgh, PA, on April 16, 1983
- Findley, Salley E. and Gordon F. DeJong, 1985.
*Community and Family Factors Influencing Family
in Hoces Notre*. PSTC Reprint Series No. 86-03.
Population Studies and Training Center, Brown
University
- Fischer, Manfred M. 1985. “Changing Models of
Reasoning in Spatial Choice Analysis”, *Papers
of the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58 : 1-5

- Fotheringham, A. S. 1986. "Modelling Hierarchical Destination Choi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18 : 401-418.
- Freedman, Ronald. 1979. "Issues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orld Fertility Survey Data", Paper No. 62,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Frisbie, W. Parker and Dudley L. Postton, Jr., 1978. *Sustenance Organization and Migration in Nonmetropolitan America*. Iowa City : The University of Iowa Press.
- Gardner, Robert W. 1981. "Macrolevel Influences on the Migration Decision Process", pp. 59-89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 Pergamon Press.
- Greewood, Michael J. 1981. *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Regional, and Metropolitan Perspectives*. New York : Academic Press.
- Haberkorn, Gerald. 1981. "The Migration Decision Making Process: Some Social-Psychological Considerations", pp. 252-278 in *Migration Decision Making: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Microlevel Studies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Gordon F. DeJong and Robert W. Gardner, New York : Pergamon Press.
- Harris, John R. and Michael P. Todaro. 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0(1) : 126-142.
- Janis, Irving L. and Leon Mann. 1977. *Decision Making*. New York : The Free Press.
- Laber, Gene and Richard X. Chase. 1971. "Interprovincial Migration in Canada as a Human Capital Deci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9(4) : 795-804.
- Landale, Nancy S. and Avery M. Guest. 1985. "Constraints, Satisfac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Speare's Model Reconsidered". *Demography*, 23(2) : 199-222.
- Lee, Everett S. 1956. "A Theory of Migration". *Demography*, 3(1) : 47-57.
- Lee, Sun-Hee. 1985. *Why People Intend to Move: Individual and Community-Level Factors of Out Migration in the Philippines*. Boulder : Westview Press.
- Lichter, Daniel T. 1982. "The Migration of Dual Worker Families: Does the Wife's Job Matter?", *Social Science Quarterly*, 63(1) : 48-57.
- Marans, Robert W. and Willard Rodgers. 1975. "Toward and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pp. 299-352 in *Metropolitan America in Contemporary Perspective*, edited by Amos H. Hawley and Vincent P. Rock,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Markham, William T. and Joseph H. Pleck. 1986. "Sex and Willingness to Move for Occupational Advancement: Some National Sample Results". *Sociological Quarterly*, 27(1) : 121-143.
- McGinnis, Robert. 1968. "A Stochastic Model of Social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5) : 712-722.
- Miller, Warren B. and R. Kenneth Godwin. 1977. *Psyche and Demos*.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on, Peter A. 1967. "Duration of Residence and Prospective Migration: the Evaluation of a Stochastic Model". *Demography*, 4(2) : 552-561.
- Myers, George C., Robert McGinnis and George Masnick. 1967. "The Duration of Residence: a Dynamic Stochastic Model of Internal Migration: a Test of the Axiom of Cumulative Inertia". *Eugenics Quarterly*, 14(2) : 121-126.
- Oosterbaan, John. 1980. *Population Dispersal: A National Imperative*. Lexington : D. C. Heath and Company.
- Peterson, William. 1958. "A General Typology of Mig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3(3) : 256-266.

- Plane, David A. and Peter A. Rogerson. 1986. "Dynamic Flow Modeling With Interregional Dependency Effects : an Application to Structural Change in the U. S. Migration System". *Demography*, 23(1) : 91-104
- Price, Daniel O. and Melanie M. Sikes. 1975. *Rural-Urban Migration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 Annotated Bibliography and Synthesis*. Washington D. C. : Center for Population Research
- Ritchey, P. Neal. 1975. "The Effect of Minority Group Status on Fertility : a Re-Examination of Concepts". *Population Studies*, 29(2) : 249-257
- Rojek, Dean G., Frank Clemente and Gene F. Summers. 1975. "Community Satisfaction : a Study of Contentment with Local Services". *Rural Sociology*, 40(2) : 177-192
- Schachter, Joseph and Paul G. Althaus. 1982. "Neighborhood Quality and Climate as Factors in U. S. Net Migration Patterns, 1974-76".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1 (4) : 387-400
- Sell, Ralph R. and Gordon F. DeJong. 1978. "Toward a Motivational Theory of Migration Decision Making". *Journal of Population*, 1(4) : 313-335.
- Shaw, R. Paul. 1975. *Migration Theory and Fact : A Review and Bibliography of Current Literature*. Philadelphia : Regional Science Reserch Institute
- Sly, David F. 1972. "Migration and the Ecological Complex".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5) : 615-628
- Speare, Alden, Jr. 1974. "Residential Satisfaction as an Intervening Variable in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11(2) : 173-188
- Speare, Alden, Jr., Frances Kobrin and Word King-kade. 1982. "The Influence of Socioeconomic Bonds and Satisfaction on Interstate Migration". *Social Forces*, 61(2) : 551-574
- Speare, Alden, Jr., Sidney Goldstein and William H. Frey. 1975. *Residential Mobility, Migration and Metropolitan Change*. Cambridge : Ballinger
- Tinakul, Nithet and William F. Stinner. 1985. *Community Commitment and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Analysis in the Context of Nonmetropolitan Turnaround*. Research Report 98. Logan : Utah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tah State Univ.
- Todaro, Michael P. 1969. "Model of Labe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 138-148
- Triandis, Harry C. 1971.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 Van Arsdol, Maurice D., Jr., Georges Z. Sabagh and Edgar W. Butler. 1968. "Retrospective and Subsequent Residential Mobility". *Demography*, 5(1) : 249-267
- Vandercamp, John. 1972. "Migration Flows, Their Determinants and the Effects of Return 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9(5) : 1012-1031
- Wardwell, John M. and C. Jack Gilchrist. 1980. "Employment Deconcentration in the Nonmetropolitan Migration Turnaround". *Demography*, 17(2) : 145-158

〈Abstract〉**Migration Decision-Making Process-Synthesis of
Macrolevel and Microlevel Perspectives**

Keywon Cheong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This study develops a model of migration decision-making process, with identifying macrolevel and microlevel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The model includes some sequential stages : to be dissatisfied with current residential area, intend to move, collect information about alternative destinations, select destination, decide to move, and make actual migration. The macrolevel factors included in the model are environment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residence and alternative destinations. The microlevel factors are psychological,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The effects of the macrolevel and micro-level factors on each stage of migration decision-making process are identified from the previous studies on migration. This study ha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will be in the area of integrating the ecological and the individual level perspectives of migration by identifying the macrolevel and microlevel effects on migration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also has implications for theoretical frameworks guiding empirical analysis of migration behavior of the individuals, and for policies aimed at redistributing population.